



한 장소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하자

김동완/일기에보주식회사 회장, 전 기상청 예보과장

나는 휴일에는 고향 후배들과 가까운 산을 찾아 등산을 하거나 직장 후배들과 더불어 테니스를 치면서 시간을 보낸다.

내 나이 60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물론 동년배 친구들과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나보다 어린 후배들과 더 많이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운동을 한다.

그런데 동년배의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모두들 자기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의 성공담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운다. 반면에 후배들과 만났을 때는 자기가 현재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지금의 일들에 열심히 있을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하는 시간을 많이 갖으려고 노력한다.

과거를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지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을 때는 될 수 있는대로 내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남들의 훌륭한 점이나 남들이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남의 단점이나 또 그들이 실패한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잊지 않고 한 마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이

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알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기자신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권한다.

그리고 남의 단점이나 실패한 것을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의 장점과 성공한 것을 이야기 하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산을 갔을 때나 테니스코트에서도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자기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또 그들이 직장에 가서는 등산갔을 때의 이야기라든가 테니스코트에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등산을 왔을 때는 직장이나 가정을 잊고 산행에만 집중하자고 그리고 운동을 하러 테니스코트에 온 이상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잊고 운동에만 전력을 다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일소일사(一所一思)” 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 항상 남보다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장소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모두가 자기일에 집중을 할 때, 자기 직장이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모두 “일소일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권하고 싶다.